

지상파, 방송 환경 변화 대비 미흡 개방적 제휴로 재탄생해야

제56회 방송의 날, 축하연 대신 특별 세미나 개최

지상파 방송의 급격한 매체력 저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태한 비즈니스 관습을 과감히 타파하고 개방적 제휴를 통해 기민한 산업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언론정보학회(회장 손병우 충남대 교수)와 한국방송협회(회장 박정훈 SBS 사장)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56회 방송의 날 특별 세미나'에서는 재원의 선순환 구조가 파괴되고 성장 동력이 상실된 지상파의 미래를 위한 대안적 전략들이 다양하게 모색되었다.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는 "TV로부터 광고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은 단순히 TV의 힘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TV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이유"라고 진단하며 "TV를 다수에게 도달 가능한 강력한 매체이자, 최고의 광고매체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 교수는 "제도 의존적인 폐쇄적 엘리트 구조를 타파하고 개방적인 제휴를 통해 기민하고 적응력 높은 산업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현재의 스포츠광고, 일부의 가상광고, VOD 광고로 제한되어 있는 TV광고를 여러 플랫폼

과의 증장기적 협력 및 공동 개발을 통해 플랫폼의 개별 특성과 긴밀히 연결되는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두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구원은 "전통적 방송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지상파 방송광고의 매체력을 복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정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은 "매체의 다양화 속에 발생된 공적 영역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질책하며, 정부 차원의 가시적인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양한열 방송정책국장은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은 비대칭 규제의 해소"라며 "중간광고, 협찬, 편성 등 규제 전반에서 통합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정훈 한국방송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도 지상파는 그 어떤 미디어보다 적극적으로 콘텐츠 제작 투자에 나서고 있고,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익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강력한 규제와 최소한의 공정경쟁도 불가능한 차별 규제 속에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매년 9월 3일 방송의 날을 앞두고 '방송의 날 축하연'을 개최하여 기념해 왔으나, 올해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비상경영 상황에 맞추어 축하연을 취소하고 대신 "방송의 위기와 대응을 위한 특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KAA** 이수지 susie@kaa.or.kr



▲ 방송협회는 56회 '방송의 날' 축하연을 취소하고 '한국 방송산업 위기와 대응방안'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